Die Frau ohne Schatten, Op. 65

- □□

정보

Richard Strauss: Die Frau

ohne Schatten, Op. 65
작곡가: Richard Strauss (1864–1949)
작품명: Die Frau ohne Schatten, Op. 65 (그림자 없는 여인)
장르: Hugo von Hofmannsthal의 독일어 대본에 의한 3막 오페라
작곡 시기: 1914–1917년
초연: 1919년 10월 10일, Wiener Staatsoper, Franz Schalk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Die_Frau_ohne_Schatten,Op.65(Strauss,_Richard)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ie_Frau_ohne_Schatten

Richard Strauss의 Die Frau ohne Schatten은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의 두 부부를 한 무대에 세운 3막 오페라다. 영혼 세계의 황후는 그림자가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인간 세계의 염색공 Barak과 그의
아내는 가난과 불화 속에 놓여 있다. 황후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얻으려 하면서 두 부부의 삶이 얽히고, 대규모 합창과 무대 밖의 목소리, 거대한 관현악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장대한 음악극으로 만든다.

개요
대본은 Hugo von Hofmannsthal이 썼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황제와 황후, 염색공 Barak과 그의 아내, 그리고 황후를 따르는 유모가 있다. 황후는 인간의 그림자를 얻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황제가 돌로 변한다는 운명을 안고 있다. 유모는 인간 부부의 갈등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지만, 황후는 Barak 부부의 집에서 인간의 생활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마주하며 그 선택이 남의 삶을 빼앗는 일임을 깨닫는다.

이 오페라에서 ‘그림자 ’는 몸에 드리우는 물리적 형상인 동시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을 가리키는 극적 장치다. 작품은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설명하기보다 , 결혼 ·출산 ·욕망 ·연민이 얽히는 사건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 준다. 영혼 세계의 인물과 인간 부부가 서로의 선택을 비추는 동안, Strauss의 음악은 섬세한 실내악적 순간에서 압도적인 음향의 절정까지 넓게 움직인다.

Strauss와 Hofmannsthal은 1911년 무렵 이 마법 동화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전쟁 기간을 거쳐 1917년에 음악을 완성했다. 초연은 1919년 10월 10일 빈의 Wiener Staatsoper에서 열렸으며 Franz Schalk가 지휘했다. Hans Breuer가 연출하고 Alfred Roller가 무대와 의상을 맡은 초연은, 당시 오페라하우스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제작 가운데 하나였다.

출판 정보와 자필 자료

초판 총보는 Berlin의 Adolph Fürstner에서 1919년에 출판되었고 , IMSLP에는 plate A.7500 F로 등록되어 있다. 관현악 파트는 A.7501 F, Otto Singer가 만든 피아노 축약보는 A.7503 F로 분류된다. 1943년 Boosey & Hawkes 재인쇄와 후대 연구총보도 이 초판 계보를 이어 간다.

Library of Congress의 Juilliard Manuscript Collection에는 1914–1915년에 작성된 제 1막 스케치북이 남아 있다. Strauss가 Richard Specht에게 쓴 1915년 헌정 문구와 대본 일부, 제 1막 첫 장면의 초안이 들어 있는 자료다. 스케치북의 축약된 악기 표기와 완성된 오페라의 대편성 총보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서다.

소요 시간

전막 공연의 음악 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 Schott와 Boosey는 210분을 제시하며, 2019년 빈 실황은 3 시간 29분 12초로 기록되었다 . 1955년 Karl Böhm 녹음처럼 절단을 포함한 음반은 197분까지 짧아질 수 있고, 1992년 Salzburg 실황 DVD는 203분으로 남아 있다. 막 사이 휴식과 극장 운영 시간은 음악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역과 성악

황제 (Der Kaiser): 테너
황후 (Die Kaiserin): 고음역의 극적 소프라노
유모 (Die Amme): 극적 메조소프라노
Barak: 베이스 바리톤
Barak의 아내: 고음역의 극적 소프라노

영혼 왕 Keikobad는 사건의 규칙을 정하지만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 밖에 Keikobad의 사자, 매의 목소리, 젊은이의 환영, 세 야경꾼, Barak의 세 형제, 여섯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목소리와 하인 ·아이 ·영혼의 합창이 더해진다. 특히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야경꾼과 아이들의 목소리는 인물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청각적으로 드러낸다.

관현악과 무대 악단

피트의 관현악은 4플루트 (일부 피콜로 겸임), 3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겸임), 여러 종류의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 4바순, 대규모 금관, 팀파니와 특수 타악기, 하프 2대, 첼레스타 2대, 현악으로 이루어진다 . 유리
하모니카 또는 musical glasses, 글로켄슈필 , 실로폰, 썰매방울, 캐스터네츠 , 채찍, 탐탐과 여러 종류의 북까지 사용해, 인물의 내면과 무대의 환상을 한꺼번에 확장한다.

무대 뒤에도 별도 악단이 필요하다. 플루트와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오르간과 탐탐이 무대의 다른 공간에서 울리고, 바람 기계와 천둥 기계가 더해진다. 제 3막에는 무대 트럼펫이 피트로 이동하는 장면도 있어, 오케스트라의 위치 자체가 이야기의 공간을 바꾼다.

세 막의 줄거리와 음악적 흐름

제 1막: 그림자를 찾아 인간 세계로

Keikobad의 사자는 유모에게 황후가 사흘 안에 그림자를 얻지 못하면 황제가 돌이 된다고 알린다. 황제는
사라진 매를 찾아 숲으로 나가고, 황후와 유모는 인간 세계의 염색공 Barak의 집을 찾아간다. Barak은
형제들과 함께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지만 , 아내는 가난과 결혼 생활에 지쳐 있다.

유모는 젊은이의 환영과 재물을 이용해 Barak의 아내가 남편과 아이를 거부하게 만든다. 황후는 처음에는 이 거래를 받아들이려 하지만, 인간 부부의 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생활의 고단함을 접하며 마음이 흔들린다. 막의 끝에 등장하는 세 야경꾼은 결혼과 부모 됨을 노래하며, 황후가 아직 갖지 못한 인간적 삶을 멀리서 비춘다.

제 2막: 거래의 대가

Barak의 집에서는 유모가 계속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젊은이의 환영은 Barak의 아내를 유혹한다.
황제는 황후의 행동을 의심하며 사냥터와 숲을 떠돈다. Barak의 아내가 자신의 그림자를 잃었다고 말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폭발하고, 황후는 자신이 타인의 불행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막에서 황후의 변화는 독백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관계를 돌아보는 동안, 황후의 성악선과 관현악의 음색도 흔들리는 욕망과 죄책감을 함께 드러낸다. 마지막에는 인간의 삶을 빼앗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각이 다음 막의 시련으로 이어진다.

제 3막: 선택과 재결합

Barak과 그의 아내는 영혼 세계와 신전으로 이어지는 시련 속에서 서로와 떨어진다. 유모는 황후에게 물의
잔을 마셔 그림자를 차지하라고 권하지만, 황후는 그 선택을 거부한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빼앗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순간, 황제는 돌이 된 상태에서 풀려나고 황후도 인간의 그림자를 얻을 길을 연다.

Barak 부부도 다시 만나며, 마지막에는 두 부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린다. 결말의 합창은 영혼과 인간, 현재의 부부와 미래의 아이를 한 공간에 겹쳐 놓는다. 처음부터 반복되던 그림자의 조건이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선택으로 풀리는 장면이다.

문학적 모티프와 음악극의 규모

Hofmannsthal의 대본은 동화, 신화, 결혼 이야기의 모티프를 한데 묶고, 황후와 유모가 오가는 두 세계를
거대한 무대 장치로 펼친다. Schott는 Goethe의 Unterhaltungen deutscher Ausgewanderten을 자유로운 각색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다른 해설은 Wilhelm Hauff의 동화와 여러 문학적 모티프를 함께 거론한다. 어느 한 원전의 줄거리를 그대로 옮긴 작품이라기보다 , 다양한 이야기의 이미지를 오페라의 공간과 인물 관계로

재구성한 대본에 가깝다.

Strauss의 음악은 실내악처럼 투명한 순간과 거대한 음향의 벽을 나란히 둔다. 황후와 유모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장면에서는 섬세한 목관과 현악이 환상의 경계를 만들고, 황제의 사냥과 신전의 시련에서는 금관과 타악, 무대 밖 악단이 공간을 넓힌다. 이 대비 덕분에 세 막의 사건은 대사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음향의 밀도와 색채가 달라지는 음악극이 된다.

초연 이후의 수용

1919년 초연 뒤 작품은 복잡한 대본과 큰 제작 규모 때문에 자주 공연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전후 빈에서는 Karl Böhm의 1953년 콘서트와 1955년 Staatsoper 무대가 작품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Solti, Sawallisch, Sinopoli, Thielemann 등의 지휘자가 전막 공연과 녹음을 남겼다.

2019년 빈 초연 100주년 실황에서 Christian Thielemann은 제 2막으로 넘어가는 첼로의 전환, 제 3막 시험 장면의 목관 대비, 제 1막 마지막의 무대 밖 야경꾼 합창을 세밀하게 다루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평가는 작품 전체의 유일한 해석이라기보다 , 특정 공연이 대규모 악단과 무대 공간을 조직한 방식에 대한 관찰이다.

주요 레코딩

Karl Böhm / Vienna Philharmonic (Decca, 1955): 197분의 역사적 녹음으로, 당시 공연
전통과 주요 성악진의 개성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절단이 포함되어 전막 악보 전체의 길이를 보여
주는 음반은 아니다.
Georg Solti / Vienna Philharmonic (1992 Salzburg 실황 DVD): Götz Friedrich 연출, Cheryl Studer·Marjana Lipovšek·Bryn Terfel·Robert Hale·Eva Marton 등이 참여한 203분의
영상 기록이다. 제 1막 황후와 유모의 하강, 제 3막에서 분리된 Barak 부부의 장면처럼 무대 공간을
활용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Christian Thielemann / Wiener Staatsoper (2019년 5월 25일 실황, Orfeo C991203): 209분 12초의 실황 음반이다. Simon Thompson은 이 연주가 제 2막의 전환과 제 3
막의 음색 대비, 야경꾼 합창을 긴 호흡으로 연결한다고 평했다.

주요 자료

Schott Music, Die Frau ohne Schatten: 작곡 ·초연, 배역, 피트와 무대 악단, 대본 배경.

Boosey & Hawkes, Die Frau ohne Schatten: 3막 구성, 210분의 공연 시간, 상세 편성, 줄거리와
초연 정보.

IMSLP, Die Frau ohne Schatten, Op. 65: Fürstner 초판 총보 ·파트 ·피아노 축약보와 작품 자료.

Library of Congress, Juilliard 스케치북: 1914–1915년 제 1막 스케치와 Strauss의 헌정 문구.

Stanford University Press, The Shadow of the Empress: 1911년 구상, Strauss와 Hofmannsthal의 창작 과정과 초연 맥락.

Metropolitan Opera, 2024–25 프로그램: 세 막의 줄거리, 배역, 무대 악단과 현대 공연 정보.

- MusicWeb International, Ralph Moore의 리뷰 참조: 1950년대 빈필과 녹음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
- MusicWeb International, 2019년 리뷰 참조: Thielemann 지휘 빈필 녹음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
- Gramophone, Alan Blyth의 Böhm 리뷰 참조: 1955년 빈필 녹음, 빈, 빈필 녹음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
- Naxos, Orfeo C668053D 음반 정보: Böhm·Vienna State Opera의 녹음 3곡 19분 25초 분량.